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정서조절의 관계에서 놀이참여의 상호작용 효과*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Fathers' Parenting and Play Participation on
Emotional Regulation of Preschoolers

전숙희¹ 이희선²

Sook Hee Jeon¹ Hee Sun Lee²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ain and interaction effects of fathers' parenting and their play participation on emotional regulation of preschooler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269 preschoolers (M: 61.4 months, SD: 15.3)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1) Father's parenting (such as rational instruction, friendly attitude) positively predicted child's emotion regulations. 2) The interaction effects of fathers' parenting (such as parenting participation, reaction, rational instruction, friendly attitude) with their constructive play participation predicted children's emotion regulations. Namely, fathers with higher constructive play participation showed higher emotion regulations of preschoolers under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reaction, rational instruction and friendly attitude. 3)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fathers' functional play participation and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predicted children's emotion regulations. Findings indicate that fathers play a role in improving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by parenting. Moreover, its effects appeared more apparently when fathers participated with constructive and functional play methods. In conclusion, it is suggested that fathering and the level of play involvement may be key variables for developing young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 본 논문은 가천대 석사학위논문
의 일부임

¹ 제1저자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팀장

² 교신저자

가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e-mail : hslee@gachon.ac.kr)

key words father's parenting, play participation,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I. 서론

유아기에 들어서면서부터 활동범위가 가정에서 사회 환경으로 확대되고 또래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정서조절능력은 유아의 정신적 건강이나 사회성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정서조절능력이란 감정과 행동을 조절한 결과물이면서 동시에 어떤 상황에 처해 정서를

사회적으로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조절하여 대처하는 능력을 말한다(Thompson, 1994). 이러한 정서조절능력은 유아가 연령이 증감함에 따라, 부모의 지시나 통제에 의해 조절되던 외적인 정서조절에서 자기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게 되는 내적인 정서조절로 변화하게 된다(Eisenberg, 1998).

그리고 유아는 자기의 정서를 이해함에 따라 정서를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하게 되면서 사회적 기준에 맞추어 정서적인 표현이나 행동을 조절해야 한다는 인식도 점차 증가한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정서를 감추기도 한다. 한편 점차 인지적 능력이 발달하면서 유아는 호기심 대신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거나 다른 생각을 함으로써 마음을 달래는 인지적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박성연, 2013; 최혜정, 이동귀, 2015; Denham, 1993; Eisenberg, Cumberland, & Spinrad, 1998).

이러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사회성 발달과 함께 연구가 진행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김경희, 2000).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지 못하는 유아는 타인에게 공격적인 반응과 문제행동을 더 많이 나타냈으며, 사회적으로 부적응적인 행동을 보였다(김지윤, 도현심, 김민정, 2008; 윤진주, 강신영, 이복주, 2005). 반면,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하는 유아는 또래와 갈등을 적게 경험하였으며, 자신과 타인의 요구간의 조화를 잘 유지하여 교사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등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였다(한유진, 2006; Eisenberg, et al., 2001; Mcdowell, Kim, O'Neil, & Parke, 2002). 또한, 자신을 적응적으로 조절하는 유아는 그 이후에도 조절능력이 높았으며, 문제행동도 덜 나타냈다(Eisenberg, Cumberland, Spinrad, Febes, & Shepard, 2006; Saarni, Mumme, & Campos, 1998).

따라서 Shields와 Cicchetti(1997)는 정서조절능력에 대해 공격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기분변화에 따른 정서의 강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역기능적 반응으로 '부적응적 정서조절'과 자신의 마음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절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정서조절능력'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절능력이 유아의 건강하고 적응적인 긍정적 측면을 고양, 발달시킨다는 관점에 초점을 두어(최혜정, 이동귀, 2015) 부적응적 정서조절을 제외하고 긍정적 정서조절능력에 초점을 두고 이를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은 부모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정서 표현에 민감하고 수용적일 때,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반면, 거부나 강압적인 양육 행동을 보일 경우 정서조절능력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lbert, 2012; Goleman, 1995; Shields & Cicchetti, 1998).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대체로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만을 살펴보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유아 양육에 참여하는 실제적 시간은 적지만, 적은 시간 안에 어느 정도 질적 보충을 할 수 있어 어머니와 비슷한 정도로 기여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면서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오남희, 2008; 정선희, 2001; 채영문, 2010).

우리나라의 경우 아버지의 대부분은 자녀양육에 있어 주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양육자인 어머니와는 달리 자녀와의 양육행동이나 상호작용패턴에 있어 차이가 있다. 실제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몇몇 연구에 의하면 가정에서 아버지는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자녀와 함께 놀이하거나 여행, 관람, 책을 읽어주

는 것으로 양육참여에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권정윤, 정미라, 이방실, 2010). 그리고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자녀의 신호나 행동에 덜 반응적이고 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Kochanska & Aksna, 2006; Lovas,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양육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할수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발달하며 유아의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과 또래와의 관계가 더 높게 나타났다(류희정, 이진희, 2013; 최미숙, 송순옥 2014; 한정현, 심미경, 2011). 그리고 아버지가 반응적이고 민감한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할수록 자기감정인식, 자기동기부여, 자기감정관리, 타인감정관리를 높인다고 보고하였다(지진미, 2003). 또한, 아버지가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를 가질 때 유아의 타인정서 인식 및 배려,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 능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배문주, 2005). 한편, 아버지의 합리적 지도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어머니가 유아의 행동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제한하고 합리적으로 지도하였을 때 유아들이 상황에 맞게 적절한 정서와 행동을 억제 할 수 있는 힘과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킨다는 연구들을 토대로 아버지의 합리적 지도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이연실, 2010, 2011; 이일선 2008). 이와 유사하게 아버지의 친밀감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관한 연구 역시, 어머니가 친밀한 관계를 보일수록 유아의 사회적 능력 중 협조성이 높다는 연구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홍계옥, 2001). 이처럼 최근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관련된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구체적인 변인들 간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아버지 놀이참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놀이참여란 부모가 놀이상대로 자녀의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유아의 다양한 발달이 촉진될 수 있도록 부모는 자녀에게 놀이를 계획해 주기도 하고, 놀이의 수준을 더 높여 주는 것을 말한다(원희영, 1998). 특히 아버지들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할 때, 어머니처럼 양육과 보호를 하기 보다는 대부분의 시간을 놀이상황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onstein & Cowan, 1988). Lamb(2010)도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시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놀이를 함께 하는 양육이며,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놀이성이 더 풍부하고 새로운 놀이를 더 많이 시도하는 특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놀이상호작용의 유형 측면에 있어서도 아버지는 신체적이고 감각적인 놀이상호작용을, 어머니는 언어적이고 인지적인 놀이상호작용을 많이 하였다. 놀이 유형 또한 아버지는 신체적 자극이나 예측 불허의 놀이를, 반면에 어머니는 자녀와 함께 역할 놀이나 상상놀이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상인, 2011; 한영숙, 2006; Haight, Parke, & Black, 1997).

이러한 아버지의 놀이참여는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놀이에 참여하는 것은 놀이의 질을 향상시키고, 유아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맺게 해주며, 유아의 창의성, 언어능력, 조망수용능력, 협동기술, 사회성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김자영, 2007; 송은혜, 2008). 이와 더불어 아버지의 놀이참여는 유아의 자기조절력과 행동적 자기조절 발달을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은혜, 2008; 하미현, 2010).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가

신체놀이, 역할놀이, 기능놀이에서의 참여수준이 높으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경우 역할놀이, 기능놀이 수준이 높은 경우,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높게 나타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최혜순, 김찬숙, 2011). 또한 구성놀이에 대한 아버지의 놀이참여는 유아의 정서지능 중 타인인식, 타인조절능력과 정적 상관이 있다고 보았다(오정미, 2014). 그리고 기능놀이에 아버지가 참여하는 것은 물체의 속성을 탐색하는 놀이 과정을 통해 부모는 더 높은 수준의놀이를 소개하고 반응함으로써 자녀의 놀이를 촉진하는 등 적절한 상호작용 및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Damast, Tamis-LeMonda, & Bornstein, 1996).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아버지가 양육참여와 같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할수록, 또한 다양한 유형의 놀이에 참여할수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버지가 양육행동과 더불어 유아와 함께 다양한 놀이 활동에 참여하며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은 유아의 정서적인 경험을 보다 풍부하게 하여 이를 통해 유아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보다 긍정적으로 조절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놀이참여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놀이를 통해 이루어짐을 고려할 때 이 두 변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한편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부모의 맞벌이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맞벌이로 어머니가 부재함으로써 정서적, 인지적 발달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가 있다. 이것은 어머니가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아이와의 감각자극 및 일상적인 상호작용이 부족하여 아이가 보내는 신호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여 의사소통과 감정교류에서 부적절하게 반응하여 애착형성에 어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윤수경, 2002). 반면에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맞벌이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의견으로 맞벌이가정의 자녀들이 보다 우수하고 사회적 기술이 좋고 충동성이 낮고 자기 통제적 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재근, 1986; 이경숙, 신의진, 전연진, 박진아, 2004).

따라서 지금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져 왔으며,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관한 소수의 연구들에서도 양육행동의 구체적인 변인들 보다는 양육참여에 대한 연구로 집중되어져 있다. 따라서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구체적인 양육행동의 효과를 알기에는 한계가 있다(권희경, 2009; 오윤란, 문혁준, 2013; 최미숙, 송순옥, 2014; 한누리, 문혁준, 2014). 또한 아버지의 경우 자녀양육에 주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돌봄과 관련된 일반적 양육참여보다는 놀이상황과 관련된 상호작용적인 양육참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화, 2011). 그러므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놀이참여를 각각 다루기보다는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놀이참여를 동시에 고려해야만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부모의 맞벌이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비밀관적인 결과를 제시해오고는 있어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놀이참여의 효과성만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맞벌이 상황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유아기 정서 발달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놀이참여와 함께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먼저 부모의 맞벌이 상황을 통제하고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독립변인으로 아버지의 놀이참여를 조절변인으로 하여 두 변인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힘으로써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도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놀이참여는 독립적으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놀이참여는 상호작용하여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 3~5세 유아($M = 61.4$ 개월, $SD = 15.3$) 269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유아와 아버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것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N = 269$)

변인	내용	빈도(%)	변인	내용	빈도(%)		
성	남아	127(47.2)	맞벌이	맞벌이	153(56.9)		
	여아	140(52.1)		외벌이	108(40.1)		
	무응답	2(0.7)		여부	무응답	8(3.0)	
유아	만3세	65(24.2)	아버지	고졸	38(14.1)		
	연령	만4세		116(43.1)	학력	대졸	164(61.0)
		만5세		84(31.2)	대학원 졸	37(13.8)	
		무응답		4(1.5)	무응답	30(11.1)	
아버지	20대	1(0.4)	가정	200만원 미만	10(3.7)		
	30대	119(44.2)		200~400 미만	91(33.9)		
	40대	118(43.9)		400~600 미만	90(33.4)		
	연령	50대 이상		2(0.7)	소득	600만원 이상	71(26.4)
		무응답		29(10.8)	무응답	7(2.6)	

2. 연구도구

본 연구를 위해서는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놀이참여는 아버지의 자기보고로,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은 동일 가정의 어머니의 보고를 통해 측정하였다.

1) 아버지의 양육행동 척도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Pease, Clark 그리고 Crease(1979)가 개발한 아이오와 부모행동 측정 목록 중 아버지용(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 Father Form, IPBI: FF)을 노현미와 박인진(1999)이 번안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결과 요인부하량이 .4이하인 4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29문항만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하위요인은 ‘양육참여(5문항)’, ‘제한설정(5문항)’, ‘반응성(5문항)’, ‘합리적 지도(9문항)’, ‘친밀감(9문항)’으로 추출되었다. 양육참여는 자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과업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제한설정은 자녀의 생활에 일정한 제한을 제시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반응성은 자녀가 필요하면 아버지가 하던 일을 중지하고 반응을 해주는 행동으로 암시적인 요구에 대한 반응도 포함한다. 합리적 지도는 행동이 수용될 수 있거나 수용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을 해주고 함께 생각해보는 행동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친밀감을 자녀에게 신체적인 애정표현을 하고 친밀감을 표현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5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양육행동 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제한설정이 다른 변인들과의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아 이를 제외한 4개의 하위요인만을 제시하였다.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문항내적 일치도는 양육참여 $\alpha = .81$, 반응성 $\alpha = .85$, 합리적 지도 $\alpha = .84$, 친밀감 $\alpha = .66$ 로 나타났다.

2) 아버지의 놀이참여 척도

아버지의 놀이참여 척도는 Stevenson, Leavitt, Tompson 그리고 Roach(1988)의 놀이유형과 이숙재(1984)의 놀이참여정도 단계를 참고로 원희영(1998)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단계는 비참여, 바라보기, 소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의 형태로써 각 문항에 대하여 1단계인 비참여에서 4단계인 적극적 놀이 참여까지 4단계 평정 척도로 각 수준별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 놀이참여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구성놀이(3문항)’, ‘신체놀이(4문항)’, ‘교수놀이(4문항)’, ‘게임(3문항)’, ‘역할놀이(4문항)’, ‘기능놀이(4문항)’로 구성되었다. 구성놀이는 물체의 속성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자발적이고 활동적이며, 의도적으로 물체를 조작하는 놀이를 의미하며, 신체놀이는 경미한 신체적 놀이와 서로 몸 접촉을 필요로 하는 격렬한 신체적 놀이를 말한다. 교수놀이는 사물의 이름과 색깔, 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책을 보거나, 질문하고 대답하는 놀이를, 게임은 경쟁의 상황과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하는 놀이를 의미한다. 역할놀이는 사물과 자신, 환경을 상상적 상황으로 대치하는 놀이를, 기능놀이는 활동적이며 의도적으로 물체를 조작하는 놀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아버지 놀이참여 하위요인의 문항내적 일치도인 Chronbach's α 는 구성놀이, 신체놀이, 교수놀이, 게임, 역할놀이, 기능놀이 각각 .86, .75, .85, .76, .93, .82로 나타났다.

3)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Shields와 Cicchetti(1997)의 Emotion Regulation Checklist(ERC)를 김지

윤 등(2008)이 수정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통제능력과 부적응적 정서조절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서통제능력 9문항을 사용하였다. 정서통제능력 문항 중 정서조절과 관련성이 적고 유아의 기분이나 감정 상태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1개의 문항(예: ‘명랑한 아이이다’)을 제외한 8문항을 사용하였다(김정민, 이순형, 2014).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마음을 잘 조절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문항 내적일치도는 $\alpha = .65$ 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설문지 배포 및 수거는 2015년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다. 자료는 서울 및 경기도에 있는 10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만 3~만5세 유아의 아버지 어머니 350쌍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포하여 각 어머니 282부, 아버지 277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아버지 79.1%, 어머니 81.0%). 이들 자료 중 일부자료가 짝이 맞지 않거나 무응답 또는 답이 누락된 경우를 제외하고 총 269부가 연구문제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 분석

자료분석은 SPSS 22.0을 이용하여 자료에 대한 빈도분석과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 사용된 독립변인과 중재변인 척도의 범위가 각각 달라서 표준화된 값(Z)으로 변환하여 아버지의 양육행동, 놀이참여,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1단계 통제변인, 2단계 통제변인과 독립변인, 조절변인, 3단계 통제변인, 독립변인, 조절변인, 상호작용 변인을 넣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실시하여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놀이참여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때, 상호작용 항은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중심화 하여 곱한 값으로 생성하였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상호작용이 유의미할 경우, 사후 검증을 위해 Aiken과 West(1991)와 Cohen, Cohen, West 그리고 Aiken(2003)의 제안에 따라 Preacher, Curran 그리고 Bauer(2006)이 개발한 계산도구를 이용하여 조절변수의 특정 값(평균 \pm 1SD)에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 관계를 나타내는 단순회귀 선들의 기울기를 확인하고, 집단 간의 기울기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놀이참여,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관계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놀이참여,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간의 단순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2>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놀이참여,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관계

(N = 269)

	1	2	3	4	5	6	7	8	9	10	11
1.양육참여											
2.반응성	.41***										
3.합리적지도	.70***	.51***									
4.친밀감	.45***	.43***	.61***								
5.구성놀이	.40***	.29***	.31***	.24***							
6.신체놀이	.43***	.24***	.33***	.37***	.40***						
7.교수놀이	.49***	.31***	.37***	.27***	.55***	.48***					
8.게임	.43***	.25***	.32***	.27***	.44***	.46***	.52***				
9.역할놀이	.33***	.24***	.21**	.18**	.53***	.53***	.47***	.52***			
10.기능놀이	.39***	.20**	.29***	.26***	.55***	.62***	.49***	.56***	.56***		
11.정서조절능력	.08	.12	.15*	.13*	.09	.04	.03	.02	.03	.10	
Mean	3.26	3.94	3.71	4.06	2.92	3.28	3.11	3.29	2.70	3.32	3.18
SD	.70	.66	.46	.47	.74	.57	.63	.62	.78	.59	.35

* $p < .05$, ** $p < .01$, *** $p < .001$.

(<표 2> 참조),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아버지의 반응성과 합리적 지도 친밀감은 구성놀이와 신체놀이, 교수놀이, 게임, 역할놀이, 기능놀이와 정적상관을 보였다($r = .18 \sim .49, p < .01$). 즉, 양육에 많이 참여하고 반응적인, 합리적인 지도를 하는, 친밀감을 표현하는 아버지는 유아와 함께 구성놀이와 신체놀이, 교수놀이, 게임, 역할놀이, 기능놀이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버지의 반응성과 합리적 지도 친밀감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정적상관관계를 보여($r = .12 \sim .15, p < .10$), 반응적인, 합리적인 지도를 하는, 친밀감을 표현하는 아버지의 유아는 긍정적인 정서조절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놀이참여의 주 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

연구문제 1과 2, 즉,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놀이참여에 대한 주 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독립변인으로 아버지의 놀이참여를 조절변인으로, 그리고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 항을 회귀식에 넣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가정의 유아가 외벌이 가정의 유아보다 정서조절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맞벌이 여부를 통제변인으로 넣었다($t = 2.03, p > .05$). 한편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파악한 결과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이 1.25~2.45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Fisher & Mason, 1981).

1)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놀이참여의 예측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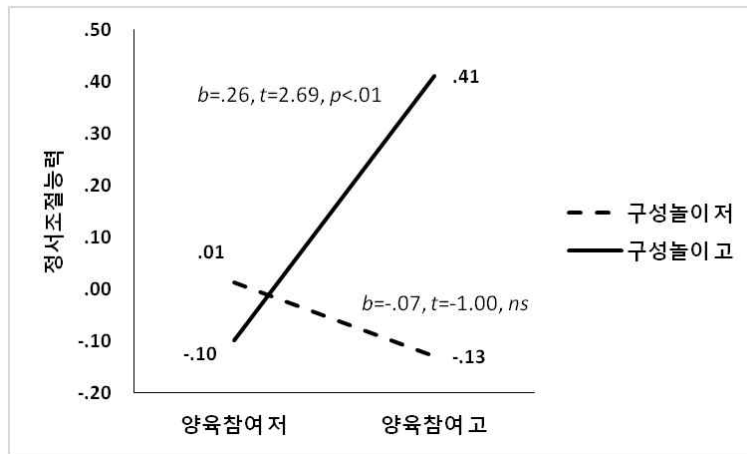
<표 3> 에서 보듯이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놀이참여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아버지

〈표 3〉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놀이참여의 예측력 (N = 2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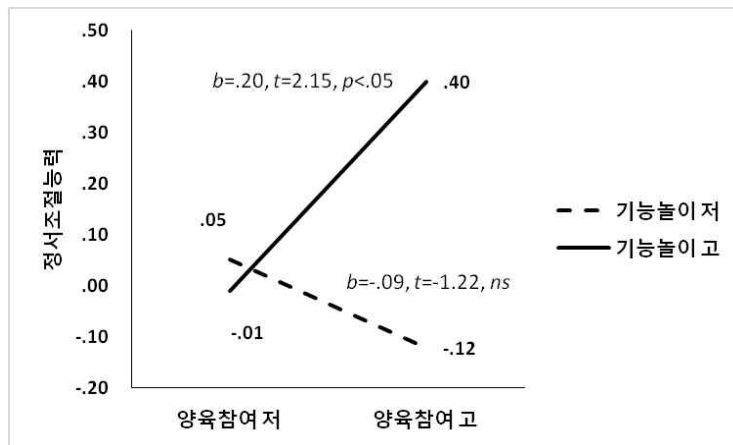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맞벌이	-.25	-.16*	-.26	-.17*	-.26	-.17*	맞벌이	-.25	-.16*	-.25	-.17*	-.25	-.17*
양육참여(A)			.05	.05	.09	.10	양육참여(A)			.08	.08	.08	.08
구성놀이(B)			.09	.00	.11	.11	신체놀이(B)			.01	.01	.01	.01
A×B					.16	.21**	A×B					.00	.00
R ²	.02		.03		.07		R ²	.02		.02		.02	
ΔR ²			.01		.04		ΔR ²			.01		.00	
F(df)	2.08 (df=1, 267)		1.96 (df=3, 265)		3.55* (df=4, 264)		F(df)	2.08 (df=1, 267)		1.54 (df=3, 265)		1.23 (df=4, 264)	
맞벌이	-.25	-.16*	-.26	-.17*	-.25	-.17*	맞벌이	-.25	-.16*	-.25	-.17*	-.25	-.16*
양육참여(A)			.10	.10	.12	.01	양육참여(A)			.09	.09	.10	.10
교수놀이(B)			-.03	-.03	-.01	-.01	게임(B)			-.02	-.02	-.00	-.00
A×B					.08	.11	A×B					.10	.12
R ²	.02		.02		.03		R ²	.02		.02		.04	
ΔR ²			.01		.01		ΔR ²			.01		.01	
F(df)	2.08 (df=1, 267)		1.58 (df=3, 265)		1.74 (df=4, 264)		F(df)	2.08 (df=1, 267)		1.55 (df=3, 265)		1.88 (df=4, 264)	
맞벌이	-.25	-.16*	-.25	-.17*	-.26	-.17*	맞벌이	-.25	-.16*	-.25	-.17*	-.27	-.18*
양육참여(A)			.08	.08	.09	-.09	양육참여(A)			.06	.06	.06	.06
역할놀이(B)			.02	.02	.02	.02	기능놀이(B)			.07	.07	.11	.12
A×B					.03	.03	A×B					.11	.15**
R ²	.02		.02		.02		R ²	.02		.03		.05	
ΔR ²			.01		.00		ΔR ²			.01		.02	
F(df)	2.08 (df=1, 267)		1.55 (df=3, 265)		1.28 (df=4, 264)		F(df)	2.08 (df=1, 259)		1.81 (df=3, 265)		2.39* (df=4, 264)	

* p < .05, ** p < .01.

의 양육참여는 구성놀이, 기능놀이와는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β = .15~.21, p < .05). 이에 대한 사후 검증 결과 아버지가 구성놀이를 많이 참여하는 경우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정적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지만(b = .26, t = 2.69, p < .01), 아버지가 구성놀이에 적게 참여하는 경우 아버지가 양육참여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 = -.07, t = -1.00, ns, [그림 1] 참조). 이와 유사하게 아버지가 기능놀이를 많이 하는 경우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정적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지만(b = .20, t = 2.15, p < .05), 아버지가 기능놀이에 적게 참여하는 경우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 = -.09, t = -1.22, ns, [그림 2] 참조). 즉, 구성놀이와 기능놀이에 많이 참여하는 아버지들



[그림 1]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구성놀이의 상호작용



[그림 2]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기능놀이의 상호작용

은 양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구성놀이와 기능놀이에 적게 참여하는 아버지들은 양육에 참여하는 것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는 서로 관련이 없었다. 한편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구성놀이, 기능놀이 그리고 상호작용 변인들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5~7% 설명하였다.

2)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성과 놀이참여의 예측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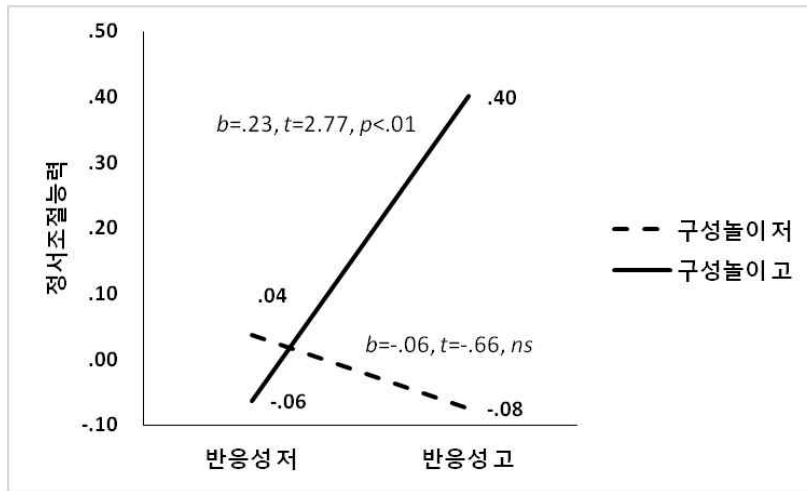
<표 4>에서 보듯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성과 놀이참여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아버지의 반응성은 구성놀이 참여와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성과 놀이참여의 예측력 (N = 269)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맞벌이	-.25	-.16*	-.24	-.16	-.24	-.16	맞벌이	-.25	-.16*	-.23	-.15	-.22	-.15
반응성(A)			.07	.07	.09	.09	반응성(A)			.09	.09	.09	.09
구성놀이(B)			.09	.09	.09	.09	신체놀이(B)			.03	.03	.03	.03
A×B					.12	.14*	A×B					.01	.01
R ²	.02		.03		.05		R ²	.02		.03		.03	
ΔR ²			.02		.02		ΔR ²			.01		.00	
F(df)	2.08 (df=1, 267)		2.09 (df=3, 265)		2.70* (df=4, 264)		F(df)	2.08 (df=1, 267)		1.66 (df=3, 265)		1.33 (df=4, 264)	
맞벌이	-.25	-.16*	-.22	-.15	-.22	-.14	맞벌이	-.25	-.16*	-.22	-.15	-.22	-.15
반응성(A)			.10	.10	.11	.12	반응성(A)			.09	.10	.10	.11
교수놀이(B)			-.01	-.01	-.00	-.00	게임(B)			-.00	-.00	.00	.00
A×B					.08	.10	A×B					.07	.09
R ²	.02		.03		.03		R ²	.02		.03		.03	
ΔR ²			.01		.01		ΔR ²			.01		.01	
F(df)	2.08 (df=1, 267)		1.62 (df=3, 265)		1.82 (df=4, 264)		F(df)	2.08 (df=1, 267)		1.62 (df=3, 265)		1.69 (df=4, 264)	
맞벌이	-.25	-.16*	-.23	-.15	-.23	-.15	맞벌이	-.25	-.16*	-.23	-.15	-.24	-.16
반응성(A)			.09	.09	.09	.09	반응성(A)			.08	.08	.07	.08
역할놀이(B)			.02	.02	.02	.02	기능놀이(B)			.07	.08	.09	.10
A×B					.09	.10	A×B					.08	.11
R ²	.02		.03		.04		R ²	.02		.03		.04	
ΔR ²			.01		.01		ΔR ²			.01		.01	
F(df)	2.08 (df=1, 267)		1.64 (df=3, 265)		1.85 (df=4, 264)		F(df)	2.08 (df=1, 267)		2.01 (df=3, 265)		2.19 (df=4, 264)	

* p < .05.

(β = .14, p < .05). 이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아버지가 구성놀이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경우 아버지의 반응성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정적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b = .23, t = 2.77, p < .01), 아버지가 구성놀이에 적게 참여하는 경우 아버지의 반응성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 = -.06, t = -.66, ns, [그림 3] 참조). 즉, 구성놀이에 많이 참여하는 아버지들은 반응적인 양육행동을 할수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높은 반면, 구성놀이에 적게 참여하는 아버지들의 반응성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는 관련이 없었다. 한편 아버지의 반응성과 구성놀이 그리고 상호작용 변인들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5% 설명하였다.



[그림 3]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성과 구성놀이의 상호작용

3)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아버지의 합리적 지도와 놀이참여의 예측력

<표 5>에서 보듯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합리적 지도는 주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2\sim.16, p < .05$). 즉, 아버지가 합리적으로 지도할수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증가되었다. 또한 아버지의 합리적 지도는 구성놀이 참여와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beta = .21, p < .01$). 이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아버지가 구성놀이에 많이 참여하는 경우 아버지가 합리적 지도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의 정적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b = .37, t = 3.86, p < .001$). 아버지가 구성놀이에 적게 참여하는 경우 아버지의 합리적 지도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상관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4, t = -.62, ns$, [그림 4] 참조). 즉, 구성놀이에 많이 참여하는 아버지들의 합리적인 지도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높은 반면 구성놀이에 적게 참여하는 아버지들의 합리적 지도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는 관련이 없었다. 한편 아버지의 합리적 지도와 구성놀이 그리고 상호작용 변인들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4~7%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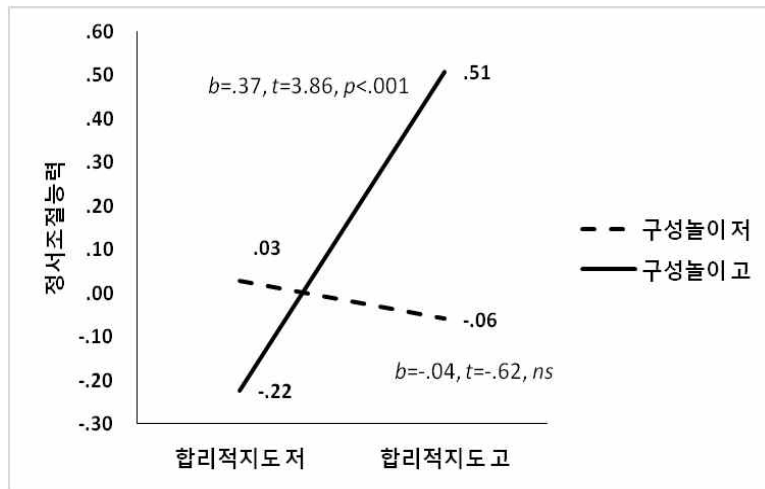
<표 5>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아버지의 합리적지도와 놀이참여의 예측력 (N = 269)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맞벌이	-.25	-.16*	-.25	-.17*	-.26	-.17*	맞벌이	-.25	-.16*	-.25	-.16*	-.25	-.16*
합리적지도(A)			.11	.11	.16	.16*	합리적지도(A)			.13	.13*	.13	.13*
구성놀이(B)			.07	.06	.08	.08	신체놀이(B)			.01	.01	.01	.01
A×B					.17	.21*	A×B					-.01	-.01
R^2	.02		.04		.07		R^2	.02		.03		.03	

〈표 5〉 계속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ΔR^2				.02		.04	ΔR^2				.02		.00
F(df)	2.08		2.56*		4.12***		F(df)	2.08		2.23		1.79	
	(df=1, 267)		(df=3, 265)		(df=4, 264)		(df=1, 267)		(df=3, 265)		(df=4, 264)		
맞벌이	-.25	-.16	-.25	-.16	-.25	-.16	맞벌이	-.25	-.16*	-.24	-.16*	-.25	-.16*
합리적지도(A)			.14	.15	.15	.16	합리적지도(A)			.14	.14*	.15	.15*
교수놀이(B)			-.03	-.03	-.03	-.03	게임(B)			-.02	-.02	-.02	-.02
A×B					.08	.10	A×B					.09	.11
R^2	.02		.04		.04		R^2	.02		.03		.05	
ΔR^2			.02		.01		ΔR^2			.02		.01	
F(df)	2.08		2.30		2.25*		F(df)	2.08		2.26		2.39*	
	(df=1, 267)		(df=3, 265)		(df=4, 264)		(df=1, 267)		(df=3, 265)		(df=4, 264)		
맞벌이	-.25	-.16*	-.25	-.16*	-.25	-.16*	맞벌이	-.25	-.16*	-.25	-.16*	-.25	-.17*
합리적지도(A)			.13	.13*	.16	.16*	합리적지도(A)			.11	.12	.12	.12*
역할놀이(B)			.02	.02	.00	.00	가능놀이(B)			.06	.06	.08	.08
A×B					.09	.11	A×B					.08	.10
R^2	.02		.03		.04		R^2	.02		.04		.05	
ΔR^2			.02		.01		ΔR^2			.02		.01	
F(df)	2.08		2.25		2.36*		F(df)	2.08		2.46*		2.47*	
	(df=1, 267)		(df=3, 265)		(df=4, 264)		(df=1, 267)		(df=3, 265)		(df=4, 264)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4]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아버지의 합리적지도와 구성놀이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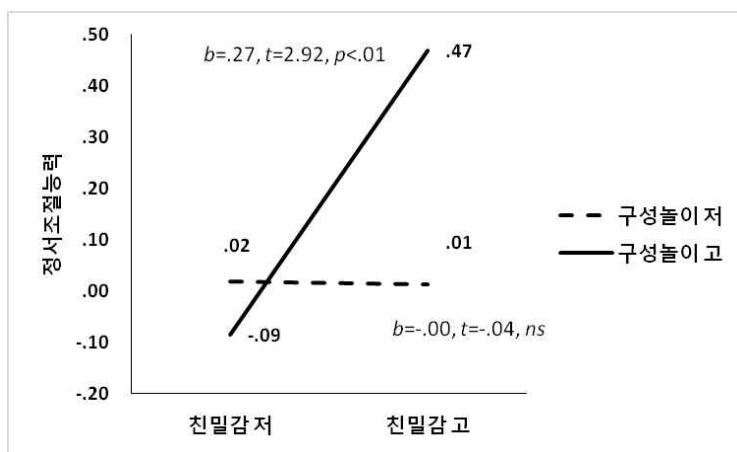
4)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아버지의 친밀감과 놀이참여의 예측력

<표 6>에서 보듯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아버지의 친밀감은 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4, p < .05$). 즉, 아버지가 더 많이 친밀할수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아버지의 친밀감은 구성놀이 참여와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아버지가 구성놀이에 많이 참여하는 경우 아버지의 친밀감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정적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b = .27, t = 2.91, p < .01$), 아버지가 구성놀이에 적게 참여하는 경우 아버지의 친밀감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없으므로 나타났다($b = -.00, t = -.04, ns$, [그림 5] 참조). 즉, 구성놀이에 많이 참여하는 아버지들의 친밀감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높은 반면 구성놀이에 적게 참여하는 아버

<표 6>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아버지의 친밀감과 놀이참여의 예측력 (N = 269)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맞벌이	-.25	-.16*	-.27	-.18*	-.29	-.19*	맞벌이	-.25	-.16*	-.26	-.17*	-.26	-.17*
친밀감(A)			.10	.10	.13	.14*	친밀감(A)			.12	.12	.13	.13*
구성놀이(B)			.08	.08	.09	.09*	신체놀이(B)			.00	.00	.01	.01
A×B					.12	.14	A×B					.05	.06
R^2	.02		.04		.06		R^2	.02		.03		.03	
ΔR^2			.02		.02		ΔR^2			.02		.00	
F(df)	2.08 (df=1, 267)		2.50* (df=3, 265)		2.96** (df=4, 264)		F(df)	2.08 (df=1, 267)		2.06 (df=3, 265)		1.80 (df=4, 264)	
맞벌이	-.25	-.16*	-.26	-.17*	-.27	-.18*	맞벌이	-.25	-.16*	-.26	-.17*	-.27	-.18*
친밀감(A)			.12	.13*	.14	.14*	친밀감(A)			.12	.13*	.13	.14*
교수놀이(B)			-.02	-.02	-.01	-.01	게임(B)			-.01	-.01	-.01	-.01
A×B					.08	.10	A×B					.06	.07
R^2	.02		.03		.04		R^2	.02		.03		.04	
ΔR^2	.02		.02		.01		ΔR^2	.02		.02		.00	
F(df)	2.08 (df=1, 267)		2.07 (df=3, 257)		2.10 (df=4, 264)		F(df)	2.08 (df=1, 267)		2.06 (df=3, 265)		1.87 (df=4, 264)	
맞벌이	-.25	-.16*	-.26	-.17*	-.26	-.17*	맞벌이	-.25	-.16*	-.26	-.17*	-.27	-.18*
친밀감(A)			.12	.12	.14	.14*	친밀감(A)			.10	.11	.11	.12
역할놀이(B)			.02	.02	.01	.01	가능놀이(B)			.07	.07	.07	.08
A×B					.09	.11	A×B					.05	.06
R^2	.02		.03		.04		R^2	.02		.04		.04	
ΔR^2			.02		.01		ΔR^2			.02		.00	
F(df)	2.08 (df=1, 267)		2.08 (df=3, 265)		2.21* (df=4, 264)		F(df)	2.08 (df=1, 267)		2.34 (df=3, 265)		2.06 (df=4, 264)	

* $p < .05$.



[그림 5]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아버지의 친밀감과 구성놀이의 상호작용

지들의 친밀감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는 관련이 없었다. 한편 아버지의 친밀감과 구성놀이 그리고 상호작용 변인들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6% 설명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해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아버지의 놀이참여를 조절변인으로 하여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주효과를 살펴봄과 동시에 이들 변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밝히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 대상은 만3세~5세 유아($M=61.4$ 개월) 269명과 그 부모이며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질문지는 어머니 보고로,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놀이참여 질문지는 아버지 보고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놀이참여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각 변인들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양육참여와 구성놀이, 기능놀이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구성놀이에 많이 참여하는 아버지들이 양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더 높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능놀이에 많이 참여하는 아버지들이 양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그리고 아버지가 구성놀이와 기능놀이에 많이 참여할수록 유아의 정서조절이 높아진다는 연구들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오정미, 2014; 최혜순, 김찬숙, 2011).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상호작용이 나타난 놀이의 유형이 구성놀이와 기능놀이로 나타난 것은 어머니들이 자녀와의 놀이참여 시 언어적이고 인지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것과 달리 아버지들은 신체놀이, 구성놀이, 기능놀이에 많이 참여할수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높아

진다는 연구들을 지지한다(류희정, 이진희, 2013; 최미숙, 송순옥 2014; 한정현, 심미경, 2011).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아버지의 양육참여 뿐만 아니라 놀이참여의 영향 또한 상당히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아버지들이 구성놀이와 기능놀이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경우에서만 아버지가 양육참여를 많이 할수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연구결과는 아버지의 같은 정도의 양육참여라도 구성놀이와 기능놀이의 참여 정도에 따라 유아의 행동 발달에 다른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역시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아버지의 반응적인 양육행동과 아버지의 구성놀이 참여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아버지의 반응성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연구를 찾아볼 수 없어 이와 유사한 애정적인 양육행동의 영향을 통해 그 효과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아버지가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할 때 유아는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배려하며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가 높다고 보고한 연구들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배문주, 2003; 이은주, 2004; 지진미, 2003). 또한 아버지가 구성놀이를 많이 참여하는 경우에만 아버지의 반응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향상된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아버지가 같은 수준으로 반응성을 보이더라도 구성놀이의 참여정도에 따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합리적 지도와 놀이참여의 주효과와 상호작용의 효과를 알아본 결과, 아버지의 합리적인 지도가 주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지도가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찾아볼 수 없지만,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대체로 유사성이 높다는 연구들을(Karreman, van Tuij, van Aken, & Deković, 2008; Tamis-LeMonda, Shannon, Cabrera, & Lamb, 2004; Valiente, Lemery-Chalfant, Reiser, 2007) 근거로 어머니의 합리적 지도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정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Paterson et al., 2012)을 통해 아버지의 합리적 지도의 영향으로 확장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합리적으로 지도할수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아버지의 합리적 지도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구성놀이의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쳤다. 즉, 아버지가 구성놀이에 많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합리적 지도가 높아질수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높아졌다. 이 또한 아버지가 같은 정도의 합리적 지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구성놀이의 참여수준에 따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다르게 나타남을 시사한다.

넷째, 아버지의 친밀감과 놀이참여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친밀감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친밀한 양육행동을 많이 할 경우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를 직접적으로 입증한 연구들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친밀감을 포함하고 있는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을(배문주, 2003; 이은주, 2004; 지진미, 2003)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어머니의 친밀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발달한다는 연구들을(홍계옥, 2001) 아버지의 친밀감에 대한 영향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아버

지의 친밀감은 주효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구성놀이 참여와 함께 상호작용하여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가 구성놀이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경우에만 아버지의 친밀감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친밀감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가 아버지의 구성놀이 참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아버지의 합리적지도, 친밀감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 역시 자녀에게 수용될 수 있는 행동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주고 함께 생각해보고, 자녀에게 신체적인 애정을 표현하고 친밀감을 표현하는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는 아버지의 놀이참여 수준에 의해 달라지는데, 특히 구성놀이와 기능놀이에 참여하는 수준이 중요한 조절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구성놀이와 기능놀이의 경우, 물체의 속성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자발적이고 활동적이며 의도적으로 물체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부모는 더 높은 수준의 놀이를 소개하고 반응함으로써 자녀의 놀이를 촉진하는 등 적절한 상호작용 및 협력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Damast et al, 1996). 이러한 경험은 유아들이 타인과 상호작용 할 때 유아 자신의 감정이나 마음을 상황에 알맞게 적절히 조절 할 수 있으며 타인의 감정을 이해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유아들은 만 5세가 가까워오면서 사물을 지나치게 정확하게 만들려고 하는 구성놀이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동은 성인이 시범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기를 원한다(Hughes, 2010). 이 때 아버지의 구성놀이참여를 통해 자신의 목표지향적인 놀이를 성공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주도성을, 실패하는 경험을 통해 죄책감을 형성하게 된다(Erikson, 1963). 특히 죄책감은 자신의 내적 기준을 위반한 데 대한 강한 정서적 반응이며(La Freniere, 2000) 정서조절능력의 발달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한 인식의 내면화, 즉 죄책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Kuczynski & Kochanska, 1990). 죄책감은 이러한 주도성뿐만 아니라 죄책감 역시도 부모가 긍정적이고 상호신뢰적인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했을 때 더 잘 발달한다(Kochanska & Aksan, 2006). 즉,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하고, 반응하고, 합리적으로 지도하며, 친밀감을 보이면서 동시에 아버지가 유아의 기능놀이와 구성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발달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한편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놀이유형의 주효과보다 상호작용 효과가 더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난 것은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어머니와 달리 돌봄이나 양육, 보호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놀이와 함께 나타난다는 김은화(2011)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즉,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정서행동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놀이와 함께 나타나며, 이 때 놀이가 아버지의 특성 상 어머니와는 달리 정서적인 교류를 많이 나누기 보다는 단순한 기능놀이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만드는 구성놀이에 많이 참여할수록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맥락으로써 아버지의 놀이참여의 중요성 또한 강조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놀이참여에 대한 주효과가 작게 나온 결과는 실제로 영향력 자체가 작았다고 보기 보다는 자기보고식 설문조사의 특성상 대부분 자신의 양육행동과 놀이참여도를 적극적으로 편향되게 보고함으로써 변량이 작았기 때문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따라서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의 수집을 위해 추후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놀이참여를 관찰이나 인터뷰 등을 통해 수집·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종속변인인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인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아버지의 양육행동, 놀이참여와의 상관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결국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모델의 설명량을 감소시켜 통계적 검증력을 감소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보다 신뢰도 높은 척도를 사용한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놀이참여가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놀이참여를 구체화하여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놀이참여와의 상호작용을 동시에 고려하여 아버지의 놀이참여 수준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변화와 함께 아버지가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놀이지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권정윤, 정미라, 이방실 (2015). 아버지의 놀이상호작용이 유아의 인지, 동작,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5(1), 333-350.
- 권희경 (2009). 아버지 양육참여도, 어머니 양육행동 및 양육 효능감, 유아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3(4), 79-98.
- 김경희 (2000). 아버지의 심리적 자세 및 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화 (2011). 아버지와 영유아의 주말 놀이 공유 실태. **한국유아체육학회지**, 12(2), 73-87.
- 김자영 (2007).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놀이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근(1986). 맞벌이 가정 아동과 홀벌이 가정 아동의 제 심리적 변인에 대한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민, 이순형 (2014). 유아의 기질이 상황에 따른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3(2), 193-204.
- 김지윤, 도현심, 김민정 (2008). 부부갈등과 유아의 기질 및 정서조절능력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5), 133-150.
- 노현미, 박인전 (1999).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생활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4),

231-245.

- 류희정, 이진희 (2013). 유아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놀이참여와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력의 관계. **육아지원연구**, 8(2), 47-64.
- 박성연 (2013). **아동발달**. 서울: 교문사.
- 배문주 (2005).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태도 일치에 따른 유아의 정서지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은혜 (2008). 아버지의 놀이참여도 및 놀이성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남희 (2008). 부와 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윤란, 문혁준 (2013).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자아탄력성이 유아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집**, 33(1), 76-99.
- 오정미 (2014). 아버지의 놀이참여도 및 놀이성과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희영 (1998). 아버지의 놀이참여 수준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상인 (2011). 맞벌이부모가 지각한 놀이신념 및 놀이참여도와 만2세 영아의 놀이성간의 관계.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수경 (2002). 어머니의 취업 유무와 자아개념이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1(2), 87-98.
- 윤진주, 강신영, 이복주 (2005). 유아의 공격성과 관련변인들의 관계성 연구: 유아의 기질과 자기조절 및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4(5), 761-770.
- 이경숙, 신의진, 전연진, 박진아 (2004). 한국 유아 행동문제의 경향과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4), 53-73.
- 이숙재 (1984). 유아의 상상놀이와 제 변인과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연실 (2010).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리더십과의 관계.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14(1), 139-163.
- 이연실 (2011). 부모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리더십과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력의 매개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16(1), 173-203.
- 이은주 (2004).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간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일선 (2008).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간의 관계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선희 (2001).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진미 (2003).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교육대학

- 원 석사학위논문.
- 채영문 (2010).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및 사회적 능력. **영유아교육연구**, **13**(1), 117-132.
- 최미숙, 송순옥 (2014).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5**(1), 313-332.
- 최혜정, 이동귀 (2015).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신념과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정서조절의 관계에서 어머니 정서표현의 매개효과. **한국아동학회지**, **36**(3), 1-18.
- 최혜순, 김찬숙 (2011). 부모의 놀이참여 수준 및 시간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간의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6**(4), 117-133.
- 하미현 (2010). 유아의 놀이에 대한 부모의 신념과 만 5세 유아의 놀이성 및 행동적 자기조절력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누리, 문혁준 (2014). 유아의 문제행동, 아버지의 양육참여, 가정환경이 유아의 학습행동에 미치는 영향. **육아지원연구**, **9**(3), 25-49.
- 한영숙 (2006). 아버지의 놀이참여와 유아-아버지 관계 및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2), 189-212.
- 한유진 (2006). 상호작용 상황에서의 정서표현, 정서이해 및 정서조절능력이 아동의 공격성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5), 1-15.
- 한정현, 심미경 (2011). 유아의 정서지능과 아버지의 양육행동과의 관계. **생애학회지**, **1**(1), 19-31.
- 홍계옥 (2001). 어머니의 자기-지각, 양육행동 및 유아의 기질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아동학회지**, **22**(2), 181-194.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Thousand Oaks: Sage.
- Albert, A. (2012). The Relation Bet ween the Time Mothers and Children Spent To gether and the Children's Trait Emotional Intelligence. *Child & Youth Care Forum*, **41**(5), 493-508.
- Bronstein, P. E., & Cowan, C. P. E. (1988). *Fatherhood today: Men's changing role in the family*. NY: John Wiley & Sons.
- Cohen, J., Cohen, P., West, S. G., & Aiken, L. S. (2003). *Applied multiple correlation/regress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Abingdon, UK: Taylor & Francis.
- Damast, A. M., Tamis-LeMonda, C. S., & Bornstein, M. H. (1996). Mother-child play: sequential interactions and relation between maternal beliefs an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7**(4), 1752-1766.
- Denham, S. A. (1993). Maternal Emotional Responsiveness and Toddlers' Social-Emotional Compet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4**(5), 715-728.
- Eisenberg, N., Cumberland, A., Spinrad, T. L., Febes, R. A., & Shepard, S. A. (2006). Relation of emotion-related regulation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 longitudinal study. *Emotion*, **6**(3),

498-510.

- Eisenberg, N. (1998). The socialization of socioemotional competence. In D. Pushkar, W. M. Bukowski, A. E. Schwartzman, E. M. Stack, & D. R. White (Ed.), *Improving competence across the lifespan* (pp. 59-78). NY: Plenum.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ra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4), 241-273.
- Eisenberg, N., Cumberland, A., Spinrad, T. L., Fabes, R. A., Shepard, S. A., Reiser, M., et al. (2001). *The Relations of Regulation and Emotionality to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72(4), 1112-1134.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Rev. Ed.). NY: Norton.
- Fisher, J. C., & Mason, R. L. (1981). The analysis of multi collinear data in criminology. In J. A. Fox (Ed.), *Methods in quantitative criminology* (pp. 99-125). NY: Academic Press.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Y : Bantam Books.
- Haight, W. L., Parke, R. D., & Black, J. E. (1997). Mothers' and fathers' beliefs about spontaneous participation in their toddlers' pretend play. *Merrill Palmer Quarterly*, 43(2), 271-290.
- Hughes, F. P. (2010). *Children, play, and development 4th*. California: SAGE.
- Karremans, A., van Tuijl, C., van Aken, M. A. G., & Deković, M. (2008). Parenting, coparenting, and effortful control in preschooler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1), 30-40.
- Kochanska, G., & Aksan, N. (2006). Children's conscience and self-reg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74(6), 1587-1618.
- Kuczynski, L., & Kochanska, G. (1990). Development of children's noncompliance strategies from toddler hood to age 5, *Developmental Psychology*, 26(3), 398-408.
- La Freniere, P. J. (2000). *Emotional development: A biosocial perspective*. CA: Wadsworth/ Thomson Learning.
- Lamb, M. E. (2010) How do fathers influence children's development? Let me count the ways. In M.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5th Ed., pp. 1-26). Hoboken, NJ: Wiley.
- Lovas, G. S. (2005). Gender and patterns of emotional availability in mother-toddler and father-toddler dyad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6(4), 327-353.
- McDowell, D. J., Kim, M., O'neil, R., & Parke, R. D. (2002).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and social competence in middle childhood: The role of maternal and paternal interactive style. *Marriage & Family Review*, 34(3/4), 345-364.
- Paterson, A. D., Babb, K. A., Camodeca, A., Goodwin, J., Ha kim-Larson, J., Voelker S., et al. (2012). Emotion-Related Parenting Styles (ERPS): A Short Form for measuring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23(4), 583-602.
- Preacher, K. J., Curran, P. J., & Bauer, D. J. (2006). Computational tools for probing interaction

- effects in multiple linear regression, multilevel modeling, and latent curve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and Behavioral Statistics*, 31(4), 437-448.
- Pease, D., Clark, S. G., & Crase, S. J. (1979). *Iowa social competency scales: School-age & preschool manual*. Ames, IW: Iowa State University Research Foundation.
- Saarni, C., Mumme, D. L., & Campos, J. J. (1998). Emotional development: Action,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In W. Damon & N. Eisenberg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Vol. 3, pp. 237-309). NY: Wiley.
- Shields, A., & Cicchetti, D. (1997). Emotion Regulation Among school-age childre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new criterion Q-Sort Scale. *Developmental Psychology*, 33(6), 906-916.
- Shields, A., & Cicchetti, D. (1998). Reactive aggression among maltreated children: The contribution of attention and emotion dysregula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7(4), 381-395.
- Stevenson, M. B., Leavitt, L. A., Thompson, R. H., & Roach, M. A. (1988). A social relations model analysis of parent and child play. *Developmental Psychology*, 24(1), 101-108.
- Tamis-LeMonda, C. S., Shannon, J. D., Cabrera, N. J., & Lamb, M. E. (2004). Fathers and mothers at play with their 2- and 3-year-olds: Contributions to language and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5(6), 1806-1820.
- Thompson, R. A. (1994). Emotion regulation: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 25-52.
- Valiente, C., Lemery-Chalfant, K., & Reiser, M. (2007). Pathways to problem behaviors: Chaotic homes, parent and child effortful control, and parenting. *Social Development*, 16(2), 249-267.

논문투고 : 16.08.16
수정원고접수 : 16.09.26
최종게재결정 : 16.10.12